GOLDEN WEEK

2014.4.28

Analyst
이상준
02)3779– 3622
hlsj@goldenbridgefg.com

주요 내용

♦ 시장 전망 : 외국인의 선물 매매 방향성 확인이 우선

지난 주 시장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흐름 끝에 급락세로 마감되었다. 1분기 실적 발표는 'Not bad' 정도의 수준이다. 하방 경직성이 예상되지만 외국인 선물 매매 방향성 확인이 먼저다.

♦ 이 주의 이슈 : 그래도 중국 노동절 효과는 기대해 보자

중국 IPO 재개 우려감은 과장된 면이 있고 지표 부진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기고 있다. 5월 노동절 연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고 씀씀이가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자.

♦ 증권사 별 관심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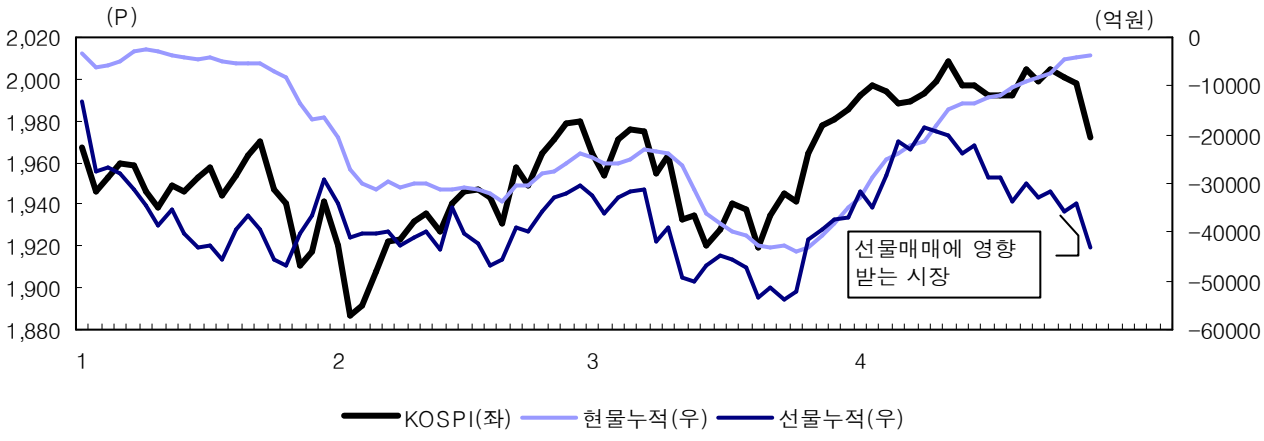
예상대로 OCI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고 증권사 추천이 중복된 종목은 없다.

♦ 주간 수급 상황 및 수급 특징주 점검

국내기관과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8일째 동반 매수 중이다.

<금주의 차트>

코스피와 외국인 매매



시장 전망

외국인의 선물 매매 방향성 확인이 우선

♦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던 한 주**

외국인 선물매매가 시장 방향성을 좌우

지난 주 시장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에 휘둘린 끝에 주말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되었다. 4월 들어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매매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시장의 방향성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어닝시즌 중간 평가, 'Not bad' 지만 모멘텀으로는 부족**

기업실적 발표 부담은 약했지만 모멘텀도 되지 못해

현재까지의 어닝 시즌에 대한 평가는 'Not bad' 정도다.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 건자재주나 OCI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목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은 실적이 모멘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주요 종목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섹터	종목명	실적에 대한 시장 평가	주가 등락률
건자재	한샘	높아진 눈 높이보다도 호전	7.5%
	LG하우시스	서프라이즈	2.4%
IT	LG디스플레이	양호, 2분기 개선 기대	-2.2%
	SK하이닉스	서프라이즈, 2분기 개선 기대	0%
자동차	현대차	예상치 소폭 하회	-3.7%
화학	금호석유화학	부진했지만 예상치는 상회	-0.5%
	LG화학	예상 부합, 2분기 개선 기대	-0.2%
	OCI	서프라이즈	4.0%
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예상보다 선전	-1.8%

주1) 4/24일까지의 실적 발표 기업을 대상으로 장 전 또는 장 중 발표 기업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장 마감 후 발표기업은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4/25일까지의 주가 등락률

주2) 실적에 대한 시장 평가는 다수 의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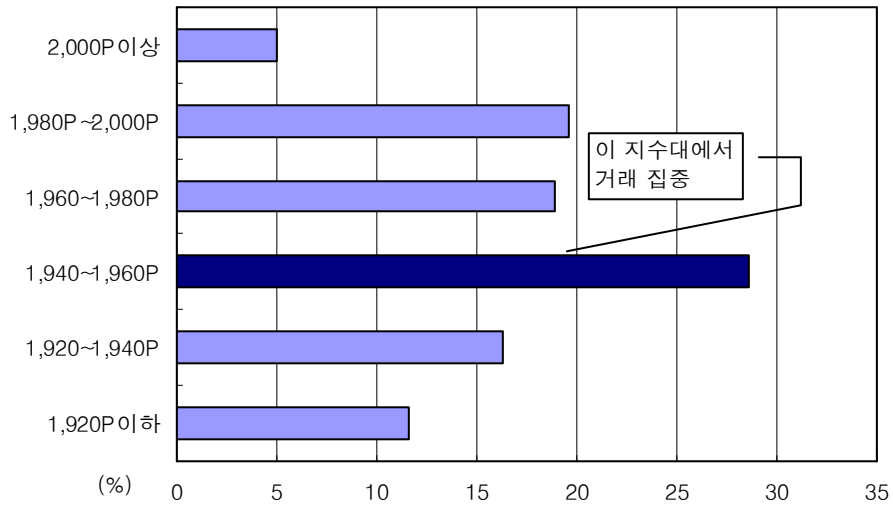
물론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은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주가가 상당 폭 상승했지만, 그 여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 하방경직은 기대되지만 시장 방향은 외국인 선물 매매가 좌우

외국인 선물매매 확인할 수 밖에 없는 흐름

현 지수가 거래 공백대라는 점도 지난주말 지수 급락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거래 분포 상 추가 하락 시 충분히 하방 경직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올해 1,940~1,960P대에서 집중적으로 거래)

지수대별 거래 분포(연초 이후)



그렇기는 해도 외국인의 선물 매매에 의해 시장이 휘둘리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매매는 아직까지 부담스럽다. 뭔가,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 변화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준회의가 가장 중요한 일정

이번 주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연준회의다. 현재 시장에서는 100억 달러 정도의 추가 테이퍼링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28일	대우건설 두산건설 등 건설주 실적
29일	삼성전자 LG전자 두산그룹 GS건설 조선주 SK텔레콤 등 실적
30일	미) 연준회의 코멘트, 시카고PMI, 호텔신라 CJ제일제당 실적
1일	미) ISM제조업지수, 3월 자동차 판매 중) 제조업PMI

이번 주 이슈

그래도 노동절 효과는 기대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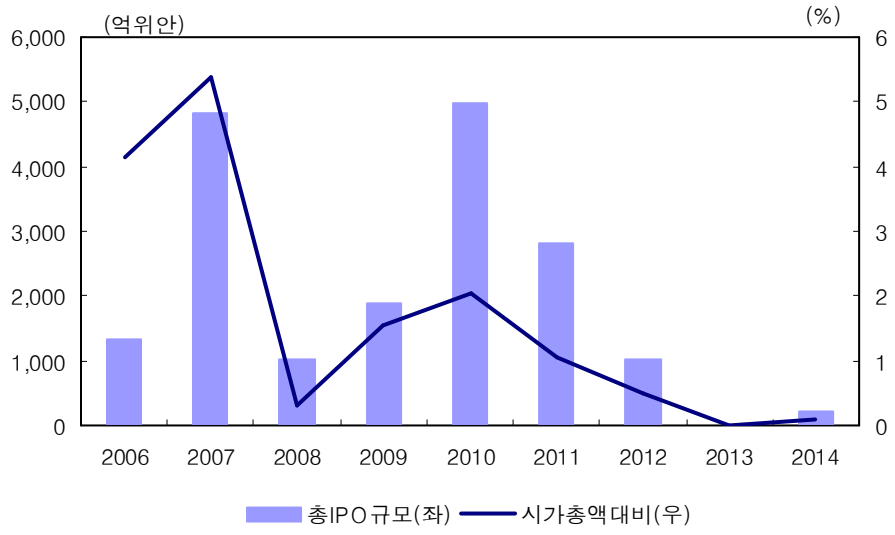
♦ IPO 재개에 대한 부담은 다소 과장

IPO와 부진한 지표, 노동절연휴

이번 주에는 5월이 시작된다. 5월 중 중국과 관련해 생각해 볼 이슈는 1) IPO의 재개가 과연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지, 2) 부진한 지표가 계속 이어질 지 여부와 정부의 부양책 가능성 3) 4월 말 ~ 5월 초에 걸친 노동절 연휴가 과연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일지 정도로 요약될 것이다.

우선 IPO가 1년 여 만에 재개되는 점은 부담이 되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중국 당국에서 4월 중순 IPO 대상인 28개 기업을 확정 발표한 점은 IPO 재개가 임박했음을 강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의 연도별 IPO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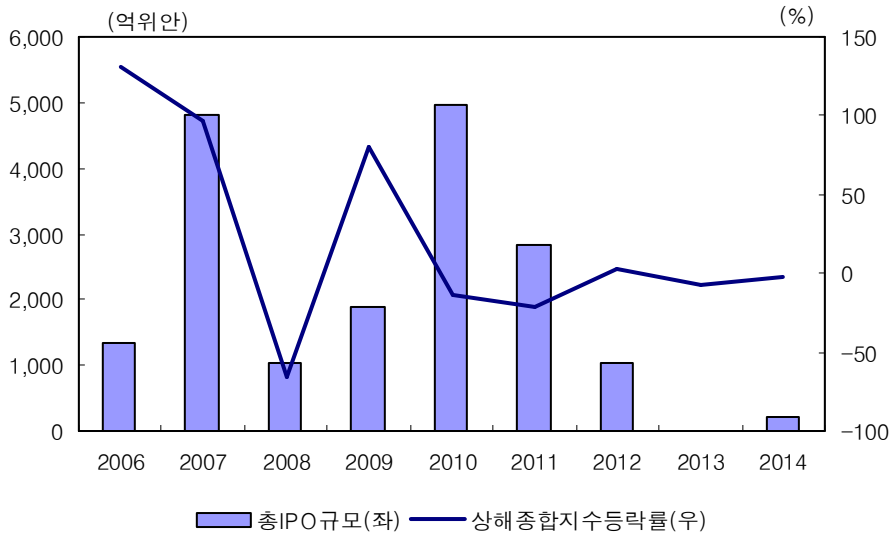
SOURCE) 자본시장연구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 시가총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

사실 수급 논리 상 IPO가 재개가 시장 흐름에 부담이 되는 것은 두

IPO 재개는 일정 부분은 시장에 부담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과거 중국의 IPO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2007년과 2010년의 경우 시장 급락을 IPO 물량 증가와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2007년의 경우 IPO가 연말 집중되면서 2008년 시장 급락요인으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IPO 규모와 상해종합지수 등락



SOURCE) 자본시장연구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과도한 부담요인은 아니라는 판단

다만 IPO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1) IPO의 절대 규모가 크지 않다

이번에 IPO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28개 기업의 조달 금액은 127억 위안 정도로 알려져 있다. IPO가 전면 중단되기 전 시점인 2011년 월평균 조달 금액은 235억 위안, 2010년에는 414억 위안이었다. 더욱이 28개 기업의 IPO가 5월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2) 관리 감독 방안이 강화되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과도한 PER를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 보고서 의무 작성과 기업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고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경우 이사회 및 임원진의 매매를 제한함으로써 무리한 IPO는 사실상 쉽지 않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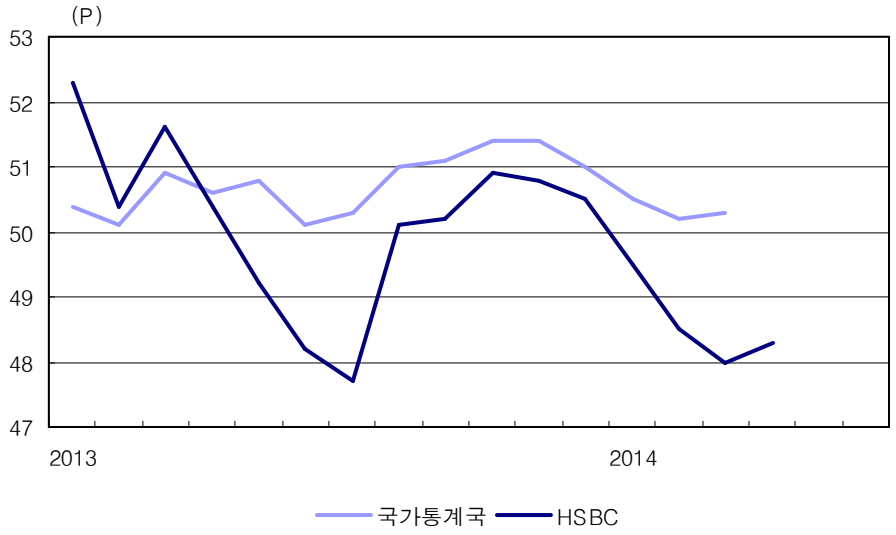
3) IPO가 중단되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중국의 IPO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중단이 되었던 이유는 시장 침체 때문이었다. 만약 시장이 다시 침체를 보일 경우 적극적인 IPO 시행 여지는 낮아지게 된다.

결국 IPO 재개는 잠정적인 악재임에 분명하지만 과도한 부담 요인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 부진한 지표에 어느 정도 내성

지난주 중국의 HSBC제조업 PMI 4월 예비치가 발표되었다.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돈 48.3P로, 3월보다는 개선되었지만 기준선을 4개월 밑돌았다.

중국의 제조업 PMI



SOURCE) 중국국가통계국, HSBC

지표의 부진 = 부양책 기대감이라는 해석은 무리한 논리

이 지표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전월보다 개선'보다는 '4개월 연속 기준선 하회' 쪽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지표 부진 =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해석하는 일부 시각이 있지만 이는 무리한 논리라는 판단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미 대규모의 부양책이 없을 것이라고 뚜렷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표 부진에는 이에 어느 정도 내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표의 부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지표 발표 직후 중국 증시의 반응은 다소 무덤덤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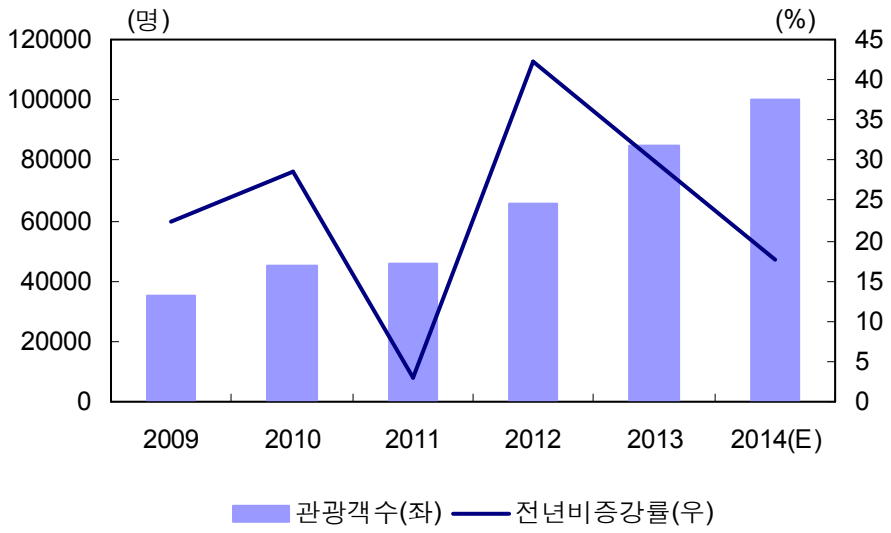
♦ 그래도 노동절 효과는 기대해 보자

중국의 춘제나 중추절 효과 등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점점 약화되는 추세다. 이번 노동절 연휴의 경우도 관련주의 기대효과가 크지는 않은 편이지만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노동절 연휴 중국관광객 10만명 입국 예상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을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노동절 연휴는 공식적으로는 5월 1일~5월 3일 이지만 중국의 특성상 대체로 4월 30일~5월 5일 정도를 연휴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절 연휴의 방한 중국 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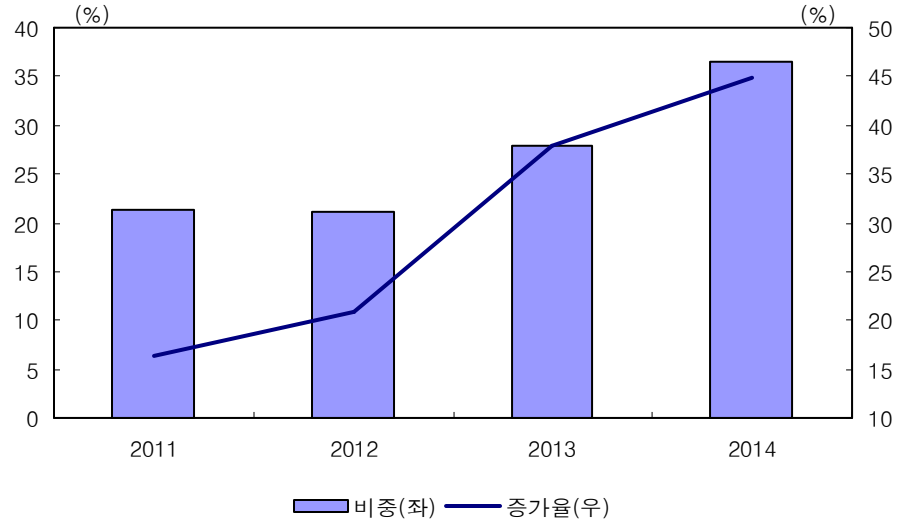


SOURCE) 한국관광공사

3월 중국 관광객 급증에 주목

주목할 점은 3월 중에 입국한 중국 관광객 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3월 중 입국한 중국 관광객 수는 2013년에 비해 무려 53.3%나 증가했고, 1분기를 기준으로 해도 지난해 1분기에 비해 45%나 증가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분기 중국 관광객 비중과 증가율



SOURCE) 한국관광공사

여유법 시행이후 중국관광객들의 씀씀이 커져

노동절 연휴와 관련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1) 위안화 약세 2) 여유법 시행 3) 세월호 침몰에 따른 영향 등을 꼽을 수 있겠으나, 이 중 위안화 약세는 위안화 절하 폭이 소비를 위축시킬 만큼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유법 시행은 우려와는 반대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즉, 이른바 덤핑 관광이 배제됨으로써 입국자 수에 비해 씀씀이가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의 표는 외국 관광객의 전체 입국자 수와 관광 수입을 살펴 본 것으로, 올해 들어 관광수입의 증가는 단연 눈에 들어 온다.

외래객 입국과 관광 수입

(천명, %, 억$)

	인원수	증감	관광수입	증감
2012	11,140	13.7	133.6	8.2
2013	12,176	9.3	141.7	6.0
2014 1~2월	1,729	10.2	23.7	21.2

SOURCE) 한국관광공사

특히 최근 중국에서 불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와 EXO 열풍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시장에서는 별 기대를 안하고 있지만 이번 노동절 연휴가 중국 관련주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소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과 관련해서는 호텔, 면세점을 포함한 백화점, 카지노, 화장품 등을 관련 업종으로 꼽을 수 있겠다.

고가품, 고급브랜드를 중심으로 접근

앞서 언급했듯이 여유업 시행 이후 내한 중국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주 역시 고가품, 고급 브랜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호텔 및 백화점의 경우는 단기적인 뉴스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다.

이번 주 증권사 관심 종목

♦ 증권사별 관심 종목

지난주 EPS 전망 10% 이상 상향 종목

6개 증권사 상향	OCI
3개 증권사 상향	삼성엔지니어링
2개 증권사 상향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1개 증권사 상향	기업은행 대신증권 무학 삼성테크윈 신세계 원익IPS 제일기획 현대리바트

SOURCE) Wisereport

OCI 등 실적호전주 EPS 전망 줄상향,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

지난주 EPS 전망치가 줄 상향된 종목은 OCI다. 다만 지난해 연말부터 꾸준히 상승하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정 폭은 크지 않지만) 3월 이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실적이 기대치를 웃돈 삼성엔지니어링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의 EPS 전망치도 예상대로 줄 상향되었다.

이번 주 증권사별 추천 종목

중복추천된 종목은 없는 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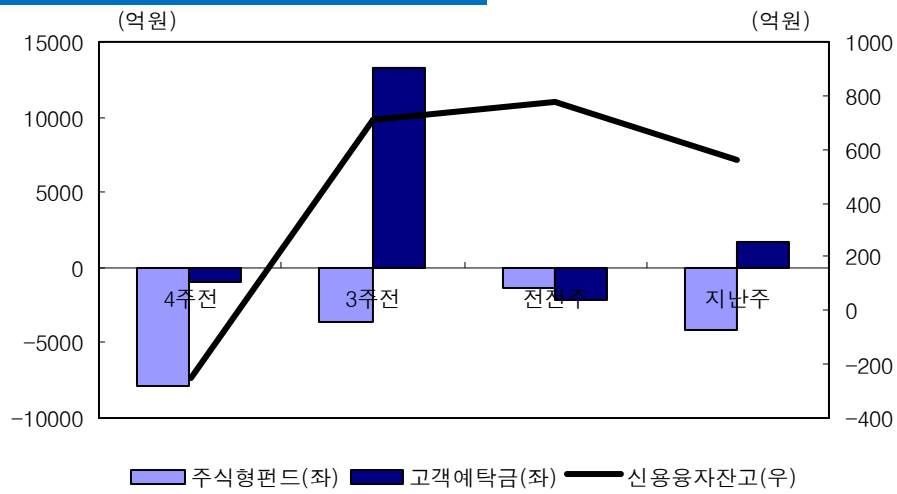
증권사	추전종목
대신증권	삼성화재 세아제강 대륙제관
대우증권	엔씨소프트 현대차
동양증권	엠케이트렌드 종근당 인선이엔티
신한금융투자	제일기획 KT 한화케미칼
한화투자증권	SK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LG화학 아비코전자
현대증권	만도 LG이노텍 기가레인

수급 체크 사항

♦ 증시 주변자금 변화

주식형펀드 자금이탈 다시 확대

주간 증시자금 증감



♦ 주간 순매수 순매도 상위 TOP5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산 종목은 SK하이닉스 정도

순매수상위 TOP5

코스피	기관	삼성생명 SK하이닉스 NAVER 한화케미칼 LG생활건강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생명 KT 한국전력
코스닥	기관	CJE&M MDS테크 다음 게일빌 CJ오쇼핑
	외국인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원익IPS 에스엠 인터파크

순매도상위 TOP5

코스피	기관	삼성전자 KB금융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외국인	한화케미칼 삼성중공업 NAVER LG생활건 삼성전자우
코스닥	기관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루멘스 파트론 비에이치
	외국인	다음 셀트리온 CJE&M 서울반도체 CJ오쇼핑